

# 딥체인지 위한 최태원의 인적 투자... SK유니버시티 신설

(SK그룹 회장)

## SK그룹, 내년 1월 공식 출범

경영경제연구소 등 역량개발 조직 통합  
구성원들의 지속적 미래역량 강화

SK그룹이 구성원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연구기관을 만든다.

SK그룹은 내년 1월 SK 유니버시티를 공식 출범시킨다고 18일 밝혔다.

SK유니버시티는 SK경영경제연구소와 SK아카데미 등 역량개발 조직을 통합해 만들어진다.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 전문 조직을 운영해 딥체인지가 가능하다는 최태원 회장 경영방침에 따른 조치다.

최태원 SK 회장은 “급속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Human Capital(인적 자



최태원 회장은 올해에도 오찬에 참여해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SK

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구성원들은 SK University를 통해 미래역량을 기르고 축적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곧 구성원들의 지속적

인 성장과 행복을 위한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그룹은 SK 유니버시티를 만들기 위해 지난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개별 운영했던 연수원과 연구소 등을 통합하는 업무를 진행했다.

SK 유니버시티는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업무형태와 핵심 역량에 대비한 교육 기능뿐 아니라 미래 역량을 커리큘럼에 반영하는 등 연구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SK그룹은 SK유니버시티가 성장동력 기회를 창출하고 비즈니스 모델 실행력을 제고하며 구성원 성장육구 충족 및 SK그룹 지속 가능성장까지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했다.

SK유니버시티는 SK 구성원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교육을 신청해 이수할 수 있도록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AI를 활용해 커리어와 역량에 맞는 교육을 자발적으로 선택해 수강하게 돕는다. 매년 구성원의 근무시간 10%에 해당하는 200시간 교육을 제공한다.

주요 교육과정은 미래성장과 비즈니스모델 혁신, 사회적 가치와 행복 및 리더십 등이다. 교육 방식은 클래스룸과 워크숍, 포럼, 코칭프로그램에서 온라인 강의와 프로젝트 기반 교육 등 다양하다. 경기도 용인 SK 아카데미 시설과 관계사 공유오피스 등을 지원한다. 외부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 퇴직임원 등이 강의를 맡는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車 생산능력 내리막... 16년 만에 '최저' 우려

현대차 등 3개사 상반기 생산능력  
173만대로 작년 보다 1.6% 감소

한국의 자동차 생산능력이 지난해 1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주요 업체의 생산능력이 감소세를 보였다.

18일 국내 완성차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3개사의 올해 상반기 국내 공장의 생산능력은 모두 172만 9420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75만6930대)보다 1.6% 감소했고, 2017년 상반기(179만 5230대)와 비교하면 3.7% 줄었다.

공장 생산능력은 연간 표준작업시간과 설비 UPH(Unit Per Hour, 시간당 생산량), 가동률의 곱으로 산출한다.

상반기 생산능력을 업체별로 보면 현대차는 88만6100대로 작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고 기아차는 76만1000대로 2.4% 줄었다. 쌍용차만 8만2320대로 0.9% 증가세를 보였다.

이들 3개사가 생산한 실적은 올해 상반기에 171만1944대로 작년 동기(164만629대)보다 4.3% 증가했지만, 2017년 상반기(173만1691대)와 비교하면 1.1% 감소했다.

이처럼 주요 완성차업체의 상반기 생산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올해 국내 자동차 생산능력은 1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최근 발간한 '한국의 자동차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능력은 453만 5000대로 2003년(439만6000대) 이후 가장 낮았다.

국내 차 생산능력은 2003년 바닥을 찍은 뒤 업체들이 생산설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한 2004년에 480만5000대로 반등했다. 이후 460만대 이상을 유지했으며 2012년에는 498만4000대로 정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3년 480만1000대, 2014년 468만9000대 등으로 급감했고 2017년에는 458만9000대로 460만대 아래로 내려섰다.

국내 차 생산능력이 2013년부터 하락세를 보인 것은 당시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주간 연속 2교대제의 영향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 생산능력은 연간 표준작업시간이 주요 변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이 폐쇄도 생산능력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생산능력 감소에 따라 생산실적도 꾸준히 감소했다.

국내 자동차 생산실적은 2013년 452만1429대에서 지난해 402만8705대로 5년 만에 10.9% 줄었다.

2015년(455만5957대)부터는 국내서 만들어진 자동차 대수가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 422만8509대, 2017년 411만4913대에 이어 지난해는 400만대선도 위협했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세계 5위였던 한국의 자동차 생산 대수 순위는 2016년 인도에 밀려 6위로, 지난해는 멕시코에 추월당하며 7위로 떨어졌다. /정연우 기자



LG전자는 미국 ATB를 후원한다.

/LG전자

## LG 시그니처, 美 발레단 통해 프리미엄 강화

LG전자, ABT와 파트너십 체결  
후원기간 3년간 체험공간 마련  
구매고객에 공연관람 이벤트도

LG전자 시그니처가 발레와 만난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는 앞으로 3년간 ABT를 공식 후원하고, 후원기간 ABT 공연 장소에 LG시그니처 체험공간을 마련키로 했다. 시그니처 구매고객에 공연 관람 기회 등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LG전자는 ABT 후원을 통해 시그니처의 예술성과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ABT는 세계적인 발레단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인 무용수 '서희' 씨가 아시아 최초 수석 발레리나로 활동해 더 유명세를 높였다.

캐라 메도프 바넷 ATB 단장은 "ABT 무용수들은 예술의 경계를 넘어 세계 곳곳에 열정을 불어넣는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LG 시그니처와 ABT의 모습이 서로 닮아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북미지역대표 조주완 부사장은 "LG 시그니처의 압도적인 성능과 정제된 디자인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 LG U+, 5G 단독모드 상용화 '성큼'

'소프트웨어 기반 코어 구조' 기술  
삼성 5G NSA 코어장비 연동 검증

LG유플러스는 5G SA(단독모드) 핵심 기술인 '소프트웨어 기반 코어 구조'를 삼성전자 5G NSA(비단독모드) 코어 장비에 국내 처음으로 연동 검증했다고 18일 밝혔다.

5G SA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전용 코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5G SA 코어 네트워크는 데이터 처리 효율성이 높은 패킷 교환기, 단말 이동성 관리 교환기, 가입자 정보 및 가입자별 최적 과금·품질 보장 정책 관리, 장비 간 라우팅 기능 제공,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을 위한 장비들로 구성된다.

LG유플러스는 이번에 5G 가입자 정보 관리 장비(HSS)와 가입자별 최적 과



LG유플러스는 5G SA의 핵심기술인 '소프트웨어 기반 코어 구조'를 삼성전자 5G 비단독모드(Non-Standalone, NSA) 코어 장비에 국내 처음으로 연동 검증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LG유플러스

금·속도 정책 관리 장비(PCRF)에 소프트웨어 기반 코어 구조를 적용해 5G NSA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킷·신호 처리

장비와 연동을 완료했다.

이번에 상용화한 소프트웨어 기반 코어 구조는 모든 장비에 동일한 연동 규격을 제공해 장비 간 연동을 편리하게 한다. 신규 장비 추가도 용이하다. 상용화는 중소기업 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아리아텍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LG유플러스는 이 구조 기술을 향후 도입하는 패킷 교환기 등 5G SA 코어 장비에도 확대해 SA 상용화를 준비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이상현 NW개발담당은 "5G SA가 상용화되면 서비스별 최적의 품질 보장, 통신 지연 시간 최소화, 단말 전력 소모 개선 등이 가능해 가상현실,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 차세대 서비스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제 15회 대한민국 오토사이언스 캠프'에 참여한 황지나 한국지엠 부사장(맨 앞줄 가운데 왼쪽)과 오토사이언스 캠프 임춘서 캠프장(맨 앞줄 가운데 오른쪽)이 캠프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쉐보레 오토사이언스 캠프 성황리 개최

한국지엠 쉐보레는 공식 후원하는 '제 15회 대한민국 오토사이언스 캠프'를 지난 15일부터 2박 3일간 강원 횡성군에 위치한 웰리힐리파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오토사이언스 캠프'

는 자동차 과학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을 높이고 미래 한국자동차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한국지엠이 공식 후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1700여명의 학생이 캠프에 참석했다.

/양성운 기자